광주불교산우회 회장 이취임식·송년회

제3대 회장에 김동수 씨 취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임원들.

광주지역 신행단체인 광주불교산우회(회장 오정의)는 12월 6일 광주수자타에서 '제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보응 스님, 부루나법사회 무등 스님, 혜공 스님, 아도 스님, 박혜자 국회의원,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김동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회장님이 어려운 여건에서 단체를 만들고 이끌어 오셨다"며 "전임 회장님의 뜻을 이어 산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정의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산우회의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전임 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전임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품 증정, 1년간 활동한 회원들에 대한 개근상 수여(남 11명, 여 12명)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김동수 신임회장과 함께 할 임원단도 첫 선을 보였다.

고문진에는 오정의, 박정주, 유병권 회원을 위촉하고, 수석부회장에 김흥철, 부회장에 채승현, 한순오, 박행숙, 김효환, 양현호, 이재형, 노기욱, 김유진 등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정운천 총무팀장, 류윤숙 총무1팀장, 이경화 총무2팀장, 문영희 총무3팀장, 최경순 재무팀장, 정원기 산행이사, 김인석 산행1팀장, 김병택 산행2팀, 정인석 산행3팀, 김광석 감사, 윤한종 감사가 단체를 이끌게 됐다.

이어 산우회는 2015년 공양미 판매수익금 99만4000원을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초대 신도회장에 이범식 씨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초대 신도회장에 이범식 前 광주불교교육원 이사장을 추대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이범식 신도회장〈사진〉은 1992~2008년까지 광주불교교육원 공동설립 및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빛과숲포럼 사무총장, (주)장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범식 회장은 "광주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광주지역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불교 활성화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범식 신도회장 임명과 관련해 "이범식 신임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묵묵히 후원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광주지역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는 내년 1월 9일 성도재일 연합법회에서 신도회장 취임행사를 갖고, 1월 중 지역 불교단체와 연대회의, 임원진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장수 만만세 잔치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12월 8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장수 만만세 잔치를 진행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창경로당 성동호(92세)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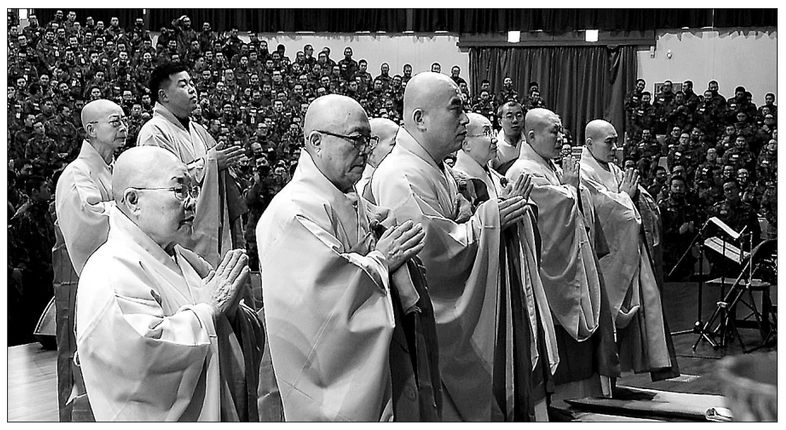
고창지역 경로당 활성화사업 17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로당 영상 상영에 이어 장수 만만세 축하 떡케이크 커팅, 만수무강 차 전달, 은빛복운구름중창단 공연, 초대가수 선민아 공연, 각설이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부턴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르신은 공경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팔순잔치 대신 군장병 수계법회 후원

군산 흥천사 지환 스님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논산 호국연무사를 후원한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왼쪽 첫 번째)과 前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스님들이 12월 5일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평생을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노스님이 팔순을 맞아 군 불자들의 수계법회를 후원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팔순을 맞은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자신의 팔순잔치 대신 논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지원했다. 대한불교보문종 종회의장 소임도 맡고 있는 지환 스님은 흥천사 신도들과 상좌스님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생신상 대신 논산훈련소 장병들을 위해 먹거리와 단주 등을 선물하며 군장병 수계법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흥천사는 12월 5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前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계사로 35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광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 건강하게 군 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호국연무사는 수계법회에서 장병들을 위해 방문한 지환 스님에게 특별히 생일케이크을 선물하고 수계장병들과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합창하면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마다하고 수계법회를 후원한 지환 스님의 팔순을 축하했다.

지환 스님은 "생일은 혼자만의 것이지만

상좌·신도와 함께 행사 지원

3500 장병 위해 발 벗고 나서

먹거리·단주 등 선물 마련해

기쁨은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신도들과 호국연무사를 찾게 됐다"면서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손자뻘 장병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항상 고맙고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삼보사 주지 법송 스님, 반야유치원장 법견 스님 등 지환 스님의 상좌스님들과 흥천사 불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 후에는 퓨전 국악단 '락음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져 국가수호 임무에 지친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했다.

지환 스님은 1947년 12살의 나이로 전주 정혜사에서 혜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세등선원, 내원사, 삼선암, 윤필암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고 1959년 흥천사를 창건했다. 1987년에는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반야유치원을 건립했다. 지난해에는 라오스에 지환 던룸초등학교를 건립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이 빛고을나눔나무에 쌀과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소원정사, '자비의 쌀' 6200kg 전달

신도 십시일반, 연탄 2000장도

빛고을 광주에서 12년째 자비나눔을 이어온 작은 사찰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지난 5일 경내에서 '제12회 연꽃향기 자비나눔 및 연꽃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도계 스님, 최영호 남구청장, 임영진 신도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총 6200kg이다. 남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차상위계층 세대에 3400kg,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에 2000kg와 연탄 2000장, 서구지역 결손가정에 600kg, 곡성 성륜사에 200kg을 나눠 전달했다. 또한 1년간 경전 사경 및 자비나눔에 대한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정희, 최우수상 손미정, 우수상 김미성, 장려상 최수연·김은숙, 봉사상 강민우 불자 등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황애숙 작가의 반야심경 글씨와 금일봉이 수여됐다.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늘 부처님과 같은 나눔의 마음을 갖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관세음보살, 내일 지장보살, 다음날은 대세지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원정사는 주지 도계 스님이 전국 180여 개의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하며, 어려운 스님과 사찰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붓다로살자' 실천도량 소외이웃 지원

사랑의 연탄·김장나눔 등

전라북도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인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과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유지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와 연탄을 전달했다.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불자들과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청소년들은 12월 5일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12월 3일부터 진행된 이번 김장김치 나눔행사에는 도연 스님을 비롯해 전북불교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금선암 신도회, 금선암 십선회,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로 마련된 약 750kg의 김장김치는 지역의 홀몸어르신과 조손가정 등의 소외계층과 사회단체에 전달됐다.

또한 전주 금선암 신도회(회장 김영돈)는 같은 날 전주시 삼천동 지역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3곳을 방문해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금선암 신도회 불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선 연탄배달 행사는 신도회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진행했다.

김영돈 회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음식문화원과 자연음식동아리 '더함다함' 회원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 군산 상주사, 전북불교네트워크는 12월 5일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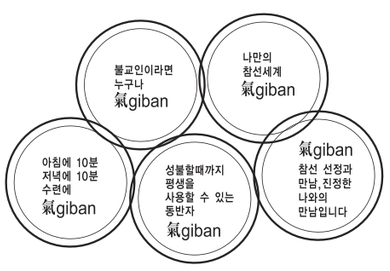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